

“클래스가 다른 먹방... 위대(胃大)하죠”



카메라가 꺼지면 더 먹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맛있는 녀석들’은 문자 그대로 위대(胃大)했다.

코미디TV를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의 4인방인 ‘이십까형’ 유민상(38), ‘김프로’ 김준현(37), ‘민정장군’ 김민경(36), ‘막둥이’ 문세운(35)을 최근 서울 명동에서 만났다. 아침 겸 점심으로 돌솥비빔밥 집에서 돌솥을 거덜 내고 온 이들은 인터뷰 내내 ‘입가심’이라며 가장 큰 외풍 두 점사와 과일주스를 해치웠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양장피 집을 향해 떠났다.

체급 좋은 4인방이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을 찾아내고, 때로는 별로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제조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맛있는 녀석들’은 2015년 1월 시작해 방송 3년 차를 맞았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유민상은 ‘맛있는 녀석들’이 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묻자 “다른 ‘조미료’ 없이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시는 것 같다”며 “4명의 조합도 사랑받고 있어 기쁘다”고 답했다.

간 마부터 낮토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늘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김준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먹방’을 실현해 왔고 요새도 다양한 실험을 한다.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밥상에 다가가게 됐다”고 자랑했다.

김민경에게는 ‘홍일점’이라서 더 섬세하게 발달한 미각이 있다고 불으니 ‘초딩 입맛’이라면서도 “방송을 하면서 가리는 음식이 없어지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준현은 “우리보다 새로운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겠다”며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매번 경이로운 ‘한입만’을 보여주는 문세운은 “사실 준현 형이 입이 더 큰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리듬감 있게 먹어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사실 가장 먹보이자 통보는 민상 형

‘맛 녀석’ 유민상·김민경·김준현·문세운 많이 먹는 만큼 맛있게 먹는 법 소개 먹는 데만 집중하니 더 재미는끼는 듯 유민상 “100세까지 먹방 계속하고 싶어”

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자주 우리에게 퐁퐁하다고 놀리는데 ‘대왕돼지’는 자신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의 먹방(먹는 방송)은 그 식당의 대표 메뉴만 맛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4인방은 식당의 음식을 거덜 내고, 그것도 모자라 싸운 음식도 깨내 식당 주인들도 혀를 내두른다. ‘맛있는 녀석들’이 코미디TV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거꾸로 식대 때문에 방송국이 망하는 것은 아닐지 농담 섞인 걱정을 하는 시청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니(?) 한계지는 있기 마련이다. 방송 전에 몇 끼를 굶는 등 많이 먹기 위한 현실적인 팀이 있느냐고 묻자 4인방은 “너무 공복이면 오히려 많이 못 먹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준현은 “위를 눌러줘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현과 문세운은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철학도 남다르다고 4인방은 입을 모았다. 4인방은 매번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절대 지저분하게 먹지 않는다. 식탁도, 그들의 그릇도, 입가도 깨끗하다. 한입에 ‘양’ 하고 음식을 깔끔하게 털어 넣는 모습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다.

‘맛있는 녀석들’은 최근 먹방 본연에 집중하며 새로운 시도를 많이 결집하며 흥분을 꺾고 있다. 개그맨들이니만큼 중간 중간 콩트를 결집하거나 멤버별 특집, 운동회 등 작은 포맷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가장 최근에는 사연을 주점해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을 찾아가 한 끼를 같이 하는 ‘혼밥특공대’가

호평받고 있다.

김민경은 “처음에는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걱정도 했는데 막상 가니 제가 오히려 ‘힐링’ 되더라. 퐁퐁하고 따듯했다”고 말했다. 유민상은 “내가 ‘고민상담사’ 역할인가 하고 갔는데 서로 똑같더라. 결국은 ‘둘 다 힘냅시다’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4인방은 앞으로 ‘맛있는 녀석들’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을 묻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맛집 옆집 특집” 해보고 싶어요. 사실 맛집 옆에 들어올 정도의 식당이면 웬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먹어보면 실제로 맛있기도 하고요.”(김준현)

“2년마다 찾아오는 MBC TV 예능 ‘무한도전’ 가요제처럼 우리도 축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육대회’요. 돼지고기 축제요. 가을에 떠나는 ‘야유회’도 좋고요. ‘무도 가요제’도 작게 시작해 축제가 됐듯이, ‘제육대회’나 ‘야유회’도 나중에 큰 지역행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문세운)

그렇다면 ‘맛있는 녀석들’은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돼지대회” 민상 형이 100세로 ‘서거’하기 전까지 하고 싶어요. 마지막회 ‘육개장 특집’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되겠네요.”(김준현) 동생의 다소 격한 농담에도 유민상은 “100세면 충분하다. 좋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이란 어떤 의미인지’도 물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항상 볼 수 있는 행복이요. 이 행복을 평생 건강하게 살면서 누리고 싶네요.”(김준현) “입마가 해준 밥요. 항상 그리고 보고 싶어요.”(김민경)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더 행복한 것요. 맛있는 음식은 넣었지만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유민상) “하루에 세 번 꼭 받아야 하는 상(賞)요. 열심히 산 덕분에 밥상을 받는 거니까요.”(문세운) /연합뉴스

‘최강 배달꾼’ 위로와 응원 통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 7.7% 종영

청춘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도 끝까지 바른길로만 걸었다. 오래 걸렸지만 꿈도 사랑도 모두 잡은 그들의 ‘착한 성공’이 더욱 빛난 이유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KBS 2TV 금토극 ‘최강 배달꾼’ 마지막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7.7%로 집계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퇴장했다.

마지막회에서는 강수(고경표 분)와 단아(채수빈 분)를 중심으로 뭉친 ‘최강 배달꾼’이 ‘정가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고 먹자골목을 지켜냈다.

전작인 ‘최고의 한방’이 높은 ‘스펙’ 덕분에 주목받으며 출발한 것과 달리 ‘최강 배달꾼’은 조용히 출발했지만 ‘휴수저’ 청춘의 건강한 성장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호평받았다.

주인공 강수는 ‘나 홀로’ 삶이 익숙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별난 놈’이었다. 한 동네 오래 머물지 않는 떠돌이 배달부 주제에 오지랖 넓기로는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늘 ‘더불어’ 생각하는 그 오지랖이 결국 강수에게 꿈도 사랑도 가져다줬다.

자본으로 무장한 정가에 유일하게 대항했던 수많은 청년을 모은 것도 강수였고, ‘헬조선’을 떠나려 돈만 모으면 단아의 마음을 돌린 것도 그랬다.

‘최강 배달꾼’은 워낙 자본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회 속에서 움쩍달짝 못 하는 청춘의 현실을 그렸지만 강수의 ‘무한 긍정’과 패기 덕분에 유쾌했고 때로는 통쾌하기까지 했다.

배우들의 호연도 빛났다.

강수를 연기한 고경표는 데뷔 8년 만에 주어진 단독 주연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배우로서 한 단계 또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수빈 역시 자칫 드세 보일 수 있는 단아를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려내며 ‘대세’다운 면모를 보였다.

‘최강 배달꾼’의 후속으로 는 장나라·손호준 주연의 ‘고백부부’를 방송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재)	50 왕은 사랑한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재) 50 감성툰 고함습니다 2(재)	50 랜제리 소녀시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도시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집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7 평창대관령음악제		10 헬로키키 아해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영화가 좋다(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25 텔레노스터(재) 30 지오메카	00 뉴스브리핑
3	30 팔도발상 스페셜 (고령지 방송)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꾸러기 식사교실 30 별별버드(재)	
4	00 4시 뉴스집중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남도스페셜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내 남자의 비밀(재)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순간포착 세상애 이면일이(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버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랜제리 소녀시대	00 웹드라마 특선 세계지적 판타지 -생동성 연애	00 사랑의 온도
11	10 월요일 기획 바다. 황금벌이 되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황금물고기의 전설. 영광굴비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	35 영상앨범 산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경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1부 두 얼굴의 이토 히로부미)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깻잎구이와 공정임셀러드)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태마기행 07:00 허중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토 09:15 소피 루비	11:20 세계태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레디미 비고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블루미즈 06:00 얼마 깨우리 16:15 두다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피아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태마기행 (보르네오가 부르네오! 1부 칼리만탄, 그 낙원의 동쪽) 21:30 한국기행 (가을바다 신 자신애보 1부 한밤의 은빛 물고기 유혹) 21:50 EBS 다큐프라임 (철학하라 1부)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가칠남자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빅토리아 3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음 8월 6일 乙卯)	
子	48년생 총체적인 점점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6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2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84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케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6, 38	午	42년생 분명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바쁘기만 하고 실리는 박하겠다. 66년생 참여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90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21, 88
丑	49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61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야말로 덕으로써 길함을 부름이니라. 73년생 경쟁심까지 따져 보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85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05	未	43년생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55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79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1년생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51
寅	50년생 평시에 우산을 준비해 뒀어 우기에 대비할 수 있다. 62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74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86년생 마음먹은 바가 뜻과 같이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14	申	4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6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68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80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3, 71
卯	51년생 활용한다면 편한 결과를 낳는다. 63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75년생 생양이 상호적이어야만 오래 지속 될 것이다. 87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35	酉	45년생 어려워 보여도 가볍게 해결되리라. 5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69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81년생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서 전처럼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적작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2, 27
辰	52년생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64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며, 구원이 평안이다. 88년생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8, 73	戌	46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70년생 안에서는 별 것이 없지만 밖에는 이로움이 있다. 82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89, 17
巳	53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65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77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89년생 자신도 모르게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2, 40	亥	47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되리라. 59년생 어떠한 시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71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83년생 진지하게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7,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